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2년 5월 9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안전정책과	담 당 자	• 안전교육팀장 김문성 ☎440-1891 • 담당자 서동근 ☎440-189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인천 만들 마스터플랜 착수

- 6일, ‘인천시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인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할 것 -

인천광역시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지난 6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평택 공사장 화재사고,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사고 등 대규모 재난과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명 등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총괄적 현황분석과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적인 도시안전을 보장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준비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시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안전총괄,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상황관리, 특별사법경찰업무, 비상대비 등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연구원의 과업보고 및 추진방향 설정으로 이뤄졌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2023년~2027년)동안의 △안전도시 현황분석과 평가 △중점관리 재난유형 선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비전 및 목표수립 △재난유형별 실행방안 도출 △안전도시 경쟁력 제고방안 △재난안전 국제협력방안 제시 등을 내용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리스크 매트릭스 분석 등 전문적 기법이외에도 시민의 안전욕구를 반영한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타 시·도 비교를 통한 시 안전조직의 적절성, 예산중점투자방향, 안전취약분야 예산의 적정성 등 세부적인 부분의 방향 제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안전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계획은 5개년 계획이지만 10년 뒤의 안전도시 인천의 모습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인천만의 특수성인 안보를 강조할 수 있도록 안보도시 인천의 방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12월 용역이 마무리 되면, 안전한 도시 인천을 위해 군·구에서도 이 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군·구 안전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착수보고회 사진

